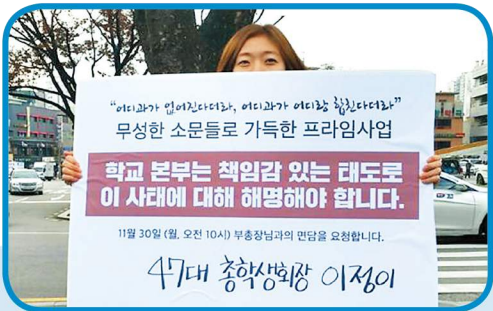


PRIME 사업... 다사다난했던 2015년 돌아보다

(시 기준)

기사명	날짜	조회수
변부터 졸업 후에도 재수강·학점포기 기록 남는다	03.06	3,249
생회 존폐논란' 두고 대자보 갑론을박	04.20	3,174
주' 사장님이 차려주는 마지막 집밥	09.25	3,037
의 딸' 키썰과 함께, 즐거운 개강!	03.02	2,985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에 경희대역(가칭) 간...서천지구주민·관계당국 반대 입장	10.30	2,950
대학평가 결과 ... 우리학교 지난해 보다 20계단 하락한 295위	09.15	2,900
호·이과대학 건물 20일 착공	06.08	2,752
발언 후마 A교수와와의 인터뷰 전문	09.27	2,650
마평가최우수, 아동가족학과원자력공학과정보디스플레이학과컴퓨터공학과	05.25	2,587
대상 설문토대로 논의를 거쳐 A교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10.13	2,534



6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배분이수교과 강의에서 A교수가 봉건적 성역할에 기반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해 파문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수업에서 불편함을 느낀 수강생들의 제보를 통해 전해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당사자인 A교수와 후마니타스칼리지 유정완 학장은 학생들에게 공개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해 일단락 됐다.

7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교내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우리 학교 교수 116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공동 발표했고, 사학과 교수 전원은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다. 사학과 재학생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일반 학생들도 대자보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고, SNS상에서도 많은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8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종합순위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고정된 지표 위주로 투자를 해왔던 우리학교가 새로운 평가지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종합순위 집계에서 KAIST(카이스트)와 포스텍이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것을 두고 구성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9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타 대학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행보가 이어지자 총학은 대학본부에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PRIME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사업 선정 발표가 예정된 내년 초까지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0

2012년 법적으로 양 캠퍼스가 하나의 학교로 통합됐지만 아직 '진정한' 통합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점을 대학주보 지령 1600호를 맞아 짚어봤다. 이에 독자들은 뜨거운 호응을 보내왔다.



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공사비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본부 측은 양 캠퍼스 SPACE21 사업비를 약 1,750억 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500억 원이 기채로, 대학본부는 3년의 거치기간에는 매년 15억 원, 그 후 17년간은 매년 약 37억 6천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원리금균등상환이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불충분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기채의 규모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상환방법 없는 기재신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교 측에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 총학생회와 대학본부가 건설사업 전반 논의할 ‘소통위원회’를 설치했고 현재 2차 회의까지 진행한 소통위원회는 SPACE21 사업과 관련한 안전·편의·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 중이다.

천개의 공감 여교수 막말사태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천개의 공감: 현대인의 심리분석〉강의에

서 A교수가 봉건적 성역할에 기반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해 파문이 일었다.

A교수는 140여 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여자들은 집에서 애를 보지 않고 금테 안경 끼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들이며, 그 순간부터 그 애들 인생은 망한 거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남성성’이지 여성이 할 일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수업에서 불편함을 느낀 수강생들의 제보를 통해 전해졌다.

A교수의 발언은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 SBS, 허핑턴포스트, 헤럴드 경제 등에서 ‘서울 사립대 여교수 수업 중 여성 폄훼 발언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로 다뤄졌고, 네티즌 의견으로는 ‘교수의 발언이 부적절하다’와, ‘수업의 맥락을 고려하면 부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후마 유정완 학장이 해당 강의 시작 전 15분간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유

연해 교육계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퍼졌고 우리학교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우리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은 10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고, 사학과 재학생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문과대학을 비롯해 이과대학·의과대학·한외과대학·치과대학·공과대학·간호과학대학 등 다양한 소속의 우리학교 교수 116명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일반 학생들도 대자보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페이스북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경희대 네트워크(경희대 네트워크)’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등 SNS상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경희대 네트워크는 ‘친일미화 독재찬양 국정 교과서 반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관련 세미나를 주최해 국정화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종합순위 11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학평가는 지난해와 달리 인문·사회·공학·자연·의학·예체능 중 4개 계열 이상을 갖춘 4년제 대학교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평가와 인문·사회·공학·자연 4개 계열에 대한 계열평가 두 가지로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올해 새롭게 진행된 계열평가에서 인문계열 종합 10위, 사회계열 종합 6위, 자연과학계열 종합 9위를 기록했다. 공학계열은 재학생 대비 계열 학생 수 20% 이상만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 그간 구성원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됐던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리학교는 신설된 항목들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강의 규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외부 경력 교원 비율’, ‘기숙사 수용률’은 기숙사 수용률이 27

에 있었던 프라임 사업에 관련된 회의록 공개, ‘이후의 회의에 학교의 3주제(교수, 직원, 학생)가 참석’을 각각 요구했다. 양 캠퍼스 총학은 공통적으로 ‘논의 과정 중 학생 대표의 참여 보장’과 ‘논의 과정의 상세한 내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대학본부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PRIME 사업 대상이 선정되는 내년 3월 중순까지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캠퍼스 통합

우리학교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통합했다. 이로서 그간 법적 ‘분교’로 표시되었던 국제캠퍼스는 본교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최근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입시정보의 ‘사실상 분교’ 표기와 캠퍼스 간 유사학과 다전공 불가와 같은 문제점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불명확한 이원화 기준’과 함께 캠퍼스 학문단위를 나타낸다는 ‘명칭’에 관한 논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과 주요 입시포털 사이트의 입시자료에서 8곳 중 6곳은 아직도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분리해 표시하고 있다. 이는 타교의 법적 분교들과 동일한 표기방식이라 자칫

